

韓國 經濟에서 나타난 輸出과 內需의 連繫性 弱化和 政策課題⁽¹⁾

金 泰 璡 · 許 栽 準

이 논문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한국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 간에 연관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이고, 이러한 연관성 약화의 원인이 무엇이며, 또 향후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있다. 통계분석에 의하면, 수출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가 1975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투자와 소비로 연결되는 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수출과 내수의 연계성이 약화된 원인으로는 자본집약적 부문으로의 산업구조 변화, 부품산업의 발달 미흡, 기업의 국내투자 저조, 서비스업 비중의 증가, 외환위기 이후 소비위축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부품과 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인력양성과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 개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출과 내수의 연계성 약화는 한국 경제에서 산업구조와 경제 환경이 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되고, 부품산업의 기술개발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증가가 지속적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생각된다.

1. 머리말

수출이 늘면 소득이 증가한다. 소득 증가가 다시 소비와 투자로 전환되면 소득은 누적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수출과 내수의 연계성이 높을수록 수출의 소득 증가 효과는 커진다. 그런데 한국 경제는 1990년대부터 과거에 비해 수출과 내수의 연계성이 약화되었다.

1980년대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1.2%였고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7%였다. 1990년대에는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5.6%였던 반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6.2%로 감소했다. 그리고 2001~06년간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1.1%였으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 이 논문은 한국무역학회 주최 ‘중장기 신무역동력확보를 위한 2007 산관학 무역정책 대토론회’ (2007. 8. 30~8. 31.)에서 발표한 “수출과 내수의 순환구조의 문제점과 정책과제”를 수정 보완한 것임.

4.6%에 그쳤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 취업자 증가율은 연평균 2.6%에 달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1.0%로 하락했다. 물론 수출 증가율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특히 취업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한 원인이 모두 輸出과 內需의 連繫性 弱화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연계성의 약화가 주요 원인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수출에 대한 소비와 투자의 비율은 1995년 3.6에서 2006년 2.3으로 낮아졌고, 반면에 수입에 대한 소비와 투자의 비율은 1990년 0.29에서 0.43으로 높아졌다. 이는 수출에서 소비나 투자로 전환된 비율은 낮아지고, 소비나 투자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서 수출과 내수의 연계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나 고용창출효과도 낮아지고 있다.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1990년 0.671에서 2003년 0.631로 하락하였고,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10억 원당(2000년 기준가격) 1990년 37.6명에서 2003년 13.6명으로 하락하였다. 이것도 수출과 내수와의 연계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수출과 내수 간의 연관관계 저하 때문이든지 아니면 다른 독립적인 요인 때문이든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내수경기 침체 원인은 國內消費와 國內投資의 萎縮에 있다.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소비가 위축되었다. 그리고 환율의 하락으로 원화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해외부문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국내 수요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도 수출로 벌어들인 이득을 투자로 전환하지 못하였고, 또 기업의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가 급증하였다. 이처럼 소비와 투자가 해외로 이전되어 수출은 증가하지만 내수경기는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 글은 수출과 내수의 연관성 약화의 경향과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수출과 내수의 연계성 약화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연계성이 약화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수출과 내수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이 무엇인가를 논하고,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간단히 요약 정리한다.

2. 輸出과 內需의 連繫性 變化

수출과 내수 간의 연관성을 수출, 소비, 투자 등 국민소득 자료와 수출과 산업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살펴보기로 하자. 국민소득 자료 중에서 수출에 대한 소비와 투자의 비율이나 수입에 대한 소비와 투자의 비율을 이용해 내수부문과 해

외부문의 연관성을 추론하고자 한다. 그리고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를 이용해 수출의 부가가치와 일자리 유발효과 변화를 알아본다. 산업연관표의 유발계수는 분류수준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통합중분류 수준의 유발계수를 이용한다.

2.1. 輸出과 消費 및 投資의 連繫性 弱화

한국의 수출은 2004년 2,000억 불 초과한 후, 2006년도에는 3,000억 불을 초과하는 높은 성장을 보였다. <表 1>을 보면, 1971~2006년의 기간 동안 수출은 연평균 15.3%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6.9%를 기록했다. 1980년대에는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11.2%,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7%였는데, 1990년대에는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15.6%로 증가한 반면 경제성장률은 6.2%로 감소하였다. 2000~2006년의 기간에는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1.1%로서 1980년대와 유사한 성장률을 보인 반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의 절반 수준인 4.6%로 낮아졌다. 1980년 이후 수출은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음에 비해 성장률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 이처럼 수출과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가 낮아진 것은 과거에 비해 수출과 소비 및 투자의 연계성이 약화된 데에 일정 정도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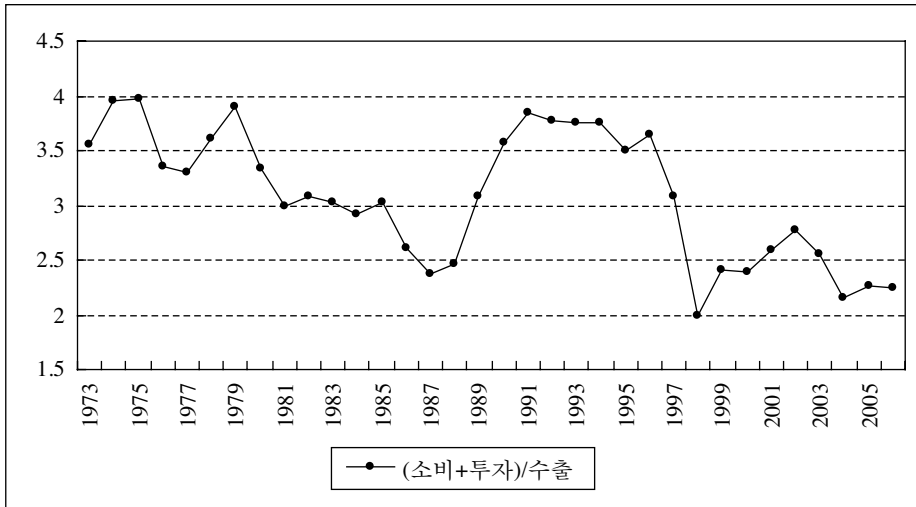
2000년 이후 수출의 증가에 비해 소비와 투자 증가가鈍化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1970년대 이후 수출에 대한(소비+투자)의 비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1995년 이후 이런 하락 현상은 두드러진다. 이는 수출의 증가가 국내소비나 투자로 연결되는 순환관계가 과거에 비해 약화되고, 또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율적인 소비 및 투자 감소가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²⁾

<表 1> 年平均 經濟成長率, 消費增加率, 投資增加率, 輸出增加率(1971~2006년)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	최종소비지출 (실질증감률)	총고정자본형성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1971~1980	7.3	6.2	14.0	21.7
1981~1990	8.7	7.6	12.6	11.2
1991~2000	6.2	5.4	5.2	15.6
2001~2006	4.6	3.5	3.0	11.1
1971~2006	6.9	5.9	9.3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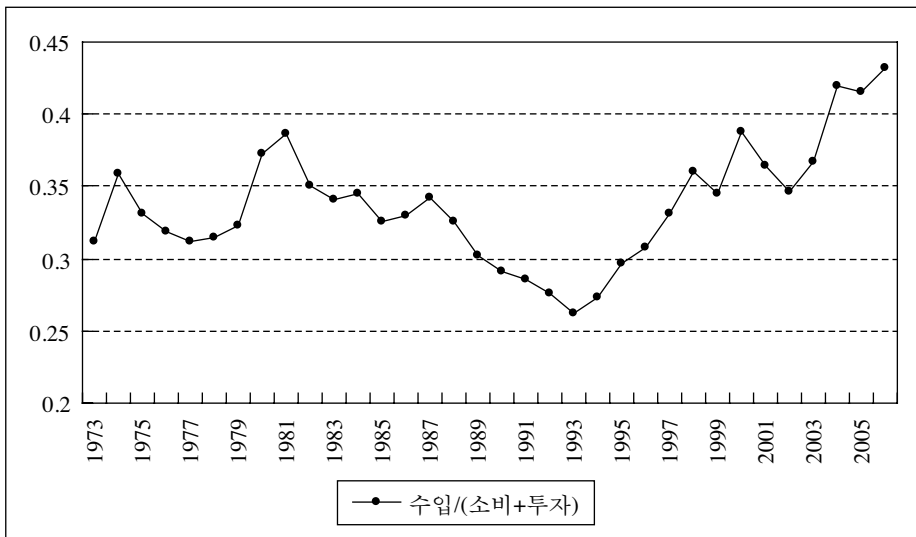
資料: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07.

(2) 신현수·최용재(2007)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의하면, 수출과 내수 간의 상관계수가 1970년 이후 양의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2003년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資料: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07.

〈그림 1〉 (消費+投資)/輸出 比率의 推移



資料: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07.

〈그림 2〉 輸入/(消費+投資) 比率의 推移

더구나 소비와 투자의 증가가 내수로 연결되지 않고 수입의 증가로 나타난다면, 수출의 소득증가에 대한 기여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림 2〉를 보면, 1990년대부터(소비+투자)에 대한 수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앞에서 보듯이 수출에 비해 소비와 투자의 비

중이 낮아지고 있고, 소비와 투자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면, 이는 수출의 증가가 국내소비나 투자로 연결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고, 더구나 소비와 투자의 증가도 국내수요를 확대하기보다는 해외수요로 누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수출증가가 국내 경제성장을 누적적으로 높이는 연결고리가 약화되어감을 말해준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海外旅行이나 輸入財에 대한 소비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국내투자보다는 상대적으로 海外 投資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2. 輸出의 附加價値 誘發效果 下落

수출 증가가 내수보다 수입을 더 유발하면 수출의 경제성장 유발효과가 낮아진다. 또한 소비 혹은 투자 증가가 국내수요를 확대하기보다는 해외수요로 누출되는 비율이 높아지면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하락한다.

〈表 2〉는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민간소비, 민간투자,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이다. 〈表 2〉에서 보듯이,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1970년 0.736에서 2003년 0.631로 크게 하락하였다. 또한 2003년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0.631은 소비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0.785나 투자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0.713에 비해 낮다. 1970년 이후 민간투자의 부가가치 기여율은 높아졌지만, 소비와 수출의 부가가치 기여율은 낮아져서 전체 최종수요의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1990년대 수준보다 낮아졌다.

전체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하락한 것은 주요 輸出商品의 附加價値 誘發係數가 낮아진데 그 요인이 있다. 〈表 3〉은 전체산업과 주요산업의 1990년 이후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이다. 주요 수출산업은 서비스산업을 제외한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5대 수출산업은 산업연관표의 통합중분류 수준에서 각 해당 연도의 수출액이 상위 5위 이내에 드는 5개 산업을 말하고, 5대 산업은 2006년 한국의 주요 산업인 전자기기부분품,

〈表 2〉 最終需要의 附加價値 誘發係數

	민간소비	민간투자	수출	총계
1970	0.862	0.580	0.736	0.798
1975	0.800	0.494	0.642	0.712
1980	0.775	0.562	0.618	0.696
1985	0.809	0.624	0.628	0.731
1990	0.807	0.692	0.671	0.755
1995	0.794	0.670	0.688	0.746
2000	0.773	0.635	0.622	0.714
2003	0.785	0.713	0.631	0.741

資料: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 연도.

〈表 3〉全體 輸出 및 主要 産業의 附加價値 誘發係數 變化

	전체수출	5대 수출산업	5대 산업
1990	0.671	0.620	0.609
1993	0.700	0.659	0.660
1995	0.688	0.677	0.668
1998	0.632	0.622	0.583
2000	0.622	0.563	0.573
2003	0.631	0.583	0.587

註: 5대 수출산업은 해당 연도 수출액 상위 5개 산업이며, 5대 산업은 전자기기부분품,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컴퓨터 및 사무기기, 자동차 및 부분품, 선박임.

資料: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 연도.

영상·음향·통신기기, 컴퓨터 및 사무기기, 자동차 및 부분품, 선박의 5개 산업을 말한다.⁽³⁾

〈表 3〉에서 주요 산업의 통합 유발계수는 각 산업의 수출액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한 값이다. 〈表 3〉을 보면, 어느 경우든 수출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下落하고 있다. 특히 1995년 이후 부가가치 유발계수의 하락률이 크다. 전체 산업의 경우에는 1995년 0.688에서 2003년 0.631로 하락하였고, 5대 수출산업의 경우에는 1995년 0.677에서 2003년 0.583으로 하락하고, 5대 산업의 경우에는 1995년 0.668에서 2003년 0.587로 하락하였다. 전체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에 비해 주요 수출품의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더 낮고 하락률도 더 크다.

한국 수출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일본에 비해서 매우 낮다. 2000년 한국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622임에 비해 일본의 유발계수는 0.89이다[박래정(2004)]. 한국의 유발계수가 낮은 것은 한국의 경우 수출에 쓰이는 부품이나 소재의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기전자 산업이나 기계 산업 등 주요 수출산업에서 핵심부품의 국산화가 미진하여 주요 부품을 輸入에 依存하고 있다.

주요 수출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핵심 부품의 생산 및 공급은 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수입하고, 값싼 부품은 중국 등 개도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업체들은 이를 조립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기업들이 국내에서 품질 좋고 값싼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수출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증가할 것이다.

(3) 각 연도의 5대 주요 수출산업과 그 수출비중은 부록에 정리하였다.

2.3. 輸出의 일자리 創出效果 下落

〈表 4〉는 수출이 취업자 수를 얼마나 증가시키는지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와 임금근로자 수를 얼마나 증가시키는지 나타내는 고용유발계수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산업연관표에는 경상가격 10억 원당 유발계수가 기록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2000년 기준가격으로 환산한 불변가격 10억 원당 취업 및 고용의 유발계수로 환산하였다. 수출액 10억 원당 취업유발계수는 1975년 69.6명에서 2003년 13.6명으로 하락하였고, 고용유발계수는 1975년 47.7명에서 2003년 10.2명으로 하락하였다. 就業誘發係數와 雇傭誘發係數가 1975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경제성장과정에서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므로 취업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1995~2003년 간 유발계수의 하락률이 그 이전에 비해 높다. 1975~1995년 기간 동안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의 연평균 하락률은 각각 4.97%와 4.63%였으나, 1995~2003년 기간 동안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의 연평균 하락률은 각각 7.37%, 7.17%였다. 이처럼 1995년 이후 취업 및 고용의 유발계수 하락률이 그 이전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졌다.

〈表 5〉는 전체 수출산업 및 주요 수출산업의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의 변화이다. 1990년 이후 취업 및 고용 유발계수는 지속적으로 下落하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체 수출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5대 수출산업이나 5대 산업에서보다 높은데, 이는 주요산업이 전체 수출산업 평균보다 자본집약적인 산업임을 시사한다. 1990년의 경우, 5대 수출산업의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가 5대 산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데, 이는 당시

〈表 4〉 輸出의 就業 및 雇傭誘發係數

	취업유발		고용유발	
	유발계수 (명/10억 원)	연평균 증가율 (%)	유발계수 (명/10억 원)	연평균 증가율 (%)
1975	69.6		47.7	
1980	51.7		38.5	
1985	42.1	-4.97	32.3	-4.63
1990	37.6		28.3	
1995	25.1		18.5	
2000	15.0	-7.37	10.7	-7.17
2003	13.6		10.2	

註: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해 2000년 기준 가격으로 환산한 수치임.

資料: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 연도.

〈表 5〉全體 輸出 및 主要 産業의 就業誘發係數와 雇傭誘發係數 推移

	취업			고용		
	전체	5대 수출	5대 산업	전체	5대 수출	5대 산업
1990	37.6	37.3	27.6	28.3	32.5	23.7
1995	25.1	18.6	17.0	18.5	16.2	14.7
1998	18.3	13.0	11.9	12.3	10.0	9.0
2000	15.0	9.6	10.7	10.7	7.9	8.8
2003	13.6	9.6	10.2	10.2	8.2	8.7

註: 1) 5대 수출산업과 5대 산업은 〈表 3〉의 주와 같음.

2) GDP 디플레이터로 환산한 2000년 기준, 10억 원당 인원임.

資料: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 연도.

비교적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이 주요 5대 산업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5년 이후에는 섬유산업이 주요 수출산업에서 제외되면서 5대 수출산업과 5대 주요 산업의 차이가 줄어들어 이들 유발계수가 유사해졌다.

전반적으로 전체 수출산업은 물론 주요 수출산업에서 취업과 고용의 유발계수가 낮아지고 있다. 특히 주요산업이 대부분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 산업의 취업 및 고용의 유발계수는 전체 산업에 비해 더 낮아졌다.

3. 輸出과 內需의 連繫性 弱化의 原因

수출과 소비 및 투자의 연계성, 소비와 수입의 관련성, 그리고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는 1990년대 이래 한국의 수출과 내수의 연관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수출이 투자, 소비로 연결되는 순환고리가 약화되고 있다. 수출과 내수의 연관성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3.1. 韓國 産業構造의 變化

한국의 산업구조가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에서 자본集約的인 産業으로 전환되었다. 1990년까지만 해도 섬유산업이 5대 주요 수출산업에 들었으나 이후에는 전자산업, 자동차 산업, 조선산업, 화학산업 등 자본집약적인 산업이 한국의 핵심 산업이 되었다.

2006년 5대 수출 주력 제품은 전자기기부분품, 영상·음향·통신기기, 자동차 및 부품품, 선박, 석유제품인데 이들 제품의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의 40%를 넘는다. 이들은 대부분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이어서 생산이 증가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아

서 직접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 이들 산업이 국내 산업과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면 추가적인 고용이 창출되지만, 부품의 수입비중이 크다면 수출과 내수의 연관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중국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의 산업구조는 노동집약재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상실하게 되고, 더욱 더 기술집약적이고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전환되었다. 한국의 산업구조가 점차 자본집약적인 부분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 결과 주요 수출품이 노동집약재에서 자본집약재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산업구조의 변화가 수출의 고용창출의 연결을 취약하게 만들면서 수출과 내수의 연결이 약화되었다고 본다.

3.2. 部品 및 素材産業의 競爭力 低調

부품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수출과 내수의 연관성을 약화시킨 또 하나의 요인이다. 만일 부품산업이 발달하였다면, 수출 증가에 따라 부품수요가 증가하고,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형성되면서 투자와 고용의 창출 효과가 컸을 것이다. 그런데 수출이 IT 등 첨단 제품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 줄 부품과 소재를 국내부품보다는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휴대전화의 부품 해외 의존도는 40%가 넘고, 컴퓨터는 70% 정도로 전기·전자 산업의 주요 수출품의 부품 해외의존도가 40%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이 늘어나지만, 국내 부품과 소재 생산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部品輸入이 늘어나게 된다.

〈表 6〉을 보면, 設備投資의 海外依存度가 增加하고 있다. 기계류의 내수 출하는 감소하는 반면에 기계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설비투자의 해외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00년을 100으로 할 때, 설비투자의 해외의존도는 2003년 136.9로 높아졌다.

부품수입의 비중이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첨단기술제품에 대한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아직 낮기 때문이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서 한국의 연구개발투자와 특허출원 등이 괄목할 만하게 늘고는 있지만 한국 경제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기술 수준에서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는 2006년 24.7억 달러 적자로 技術料 收支에서 아직 赤字를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경제는 지속적으로 技術貿易 逆調現狀을 보여 왔다. 2002년의 경우 전기전자 분야는 다른 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4억 2,000만 달러의 기술을 수출했지만 동시에 세 배에 가까운 금액의 기술을 수입했다. 전체 기술무역 적자의 54.2%가 전기전자 분야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적자 규모가 전체 적자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두 나라에 대한 기술의존도가 심함을 알 수 있다. 기술료 수지가 적자인 원인 중의 하나는 시장의 표준이 외국기업의 특허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리의

〈表 6〉設備投資의 海外依存度 指數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93.7	95.3	100	100.7	115.7	136.9

註: 설비투자 해외의존도는(기계류 수입물량지수/설비기계류 내수출하지수)×100으로 계산되며, 설비투자 수입에 따른 국내투자의 위축 정도를 나타냄.

資料: 장재철(2004).

기술수준이 높더라도 외국의 특허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도 기술료 수지를 단기간에 호전시키기 어려운 이유이다.

국산 부품의 투입비중이 줄어든 또 다른 이유는 단순 노동집약적인 부품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하기보다는 해외 아웃소싱(outsourcing)을 통해 중국 등에서 생산하여 수입하는 비중이 늘어난 데에 있다. 이와 같이 기술수준이 높은 부품은 선진국에서 수입하고, 단순 노동집약적인 부품은 중국 등 개도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출에 쓰이는 부품이나 소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하락하고, 수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경제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3.3. 企業들의 國內投資 低調

수출의 증가로 얻은 기업의 수익이 투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안정성을 중시하여 모험투자를 자제하고 있다. 2004년 474.1%였던 국내 기업들의 현금 유보율은 2005년 말 569.71%에서 2006년 9월 말 현재 609.34%로 높아졌다. 투자는 그 자체로서 GDP를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자본스톡을 늘려서 미래의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지나치게 기업의 投資가 萎縮되었다. 2002년 이후 수출의 분기별 증가율은 평균 12.2%인데, 설비투자 증가는 3.3%에 불과하다.

그리고 기업의 해외 투자 증가가 국내 투자의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 WTO체제의 출범 이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로 급속히 세계시장이 재편되어 왔다. 국내에서 기술력 있는 기업은 확대된 세계시장을 만끽하지만 저렴한 인건비에만 의존하던 중소기업은 생산기지를 옮기거나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생산방식을 갖추어야 생존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리한 곳에 중간재 및 최종재 생산공장을 설치하거나 그로부터 물건을 조달받고 있다.⁽⁴⁾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도 급격히 생산의 일부분

(4) 이처럼 세계적 수준에서 기업의 아웃소싱이 증가한 것은 전자제품과 자동차 생산공정의 모듈화가 현저하게 진행되고, WTO출범으로 인한 무역 및 투자자유화가 진행되었으며, 기술발달로 인해 통신 및 수송비용이 감소한 것이 그 배경으로 볼 수 있다.

〈表 7〉 中國 內 韓國企業의 中間財 調達 比率 變化

	ICT		섬유의류		자동차	
	1996	2003	1996	2003	1996	2003
중국 내 조달	16.7	56.5	21.8	63.3	31.1	40.8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64.7	36.3	74.8	25.7	68.9	59.2

資料: 한국개발연구원(2006).

혹은 전부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해외 다른 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조달하는 해외 아웃소싱을 늘리고 있다. 또 해외에 설립된 공장들은 중간재의 현지조달 비율을 높이고 있다. 〈表 7〉를 보면,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이 중간재를 한국에서 수입하기보다는 중국 내에서 조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내 중간재 조달 비율이 1996년에는 산업에 따라 16~31% 수준이었으나, 2003년에는 64~74%로 높아졌다. 이와 같이 해외 투자기업들의 국내 산업과의 연관성 하락도 기업의 국내투자를 줄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기업의 해외 공장이전이 국내 투자를 줄이고 있다.

3.4. 國內 서비스産業의 낮은 生産性

한국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꾸준히 增加하고 있다. 2005년 우리나라 서비스업 취업자 수 비중은 2002년의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의 서비스업 고용비중 65%와 유사한 수준이며,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그리고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도 아일랜드를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서비스업의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해 왔다. 1993~2005년 간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를 보면, 농림어업과 광업, 공업 부문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고, 서비스업에서만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생산성과 그 증가율은 제조업에 비해 낮은 편이다. 〈表 8〉을 보면, 1998~2006년 기간에 제조업 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8.9%에 이르렀으나 서비스업 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0.6%에 불과했다. 2005년 현재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의 45.9%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지 않은 반면,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OECD 평균의 6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매우 낮다.

2003년 한국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100으로 할 때, 미국은 242.0, 일본은 184.4로 한국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OECD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⁵⁾ 반면에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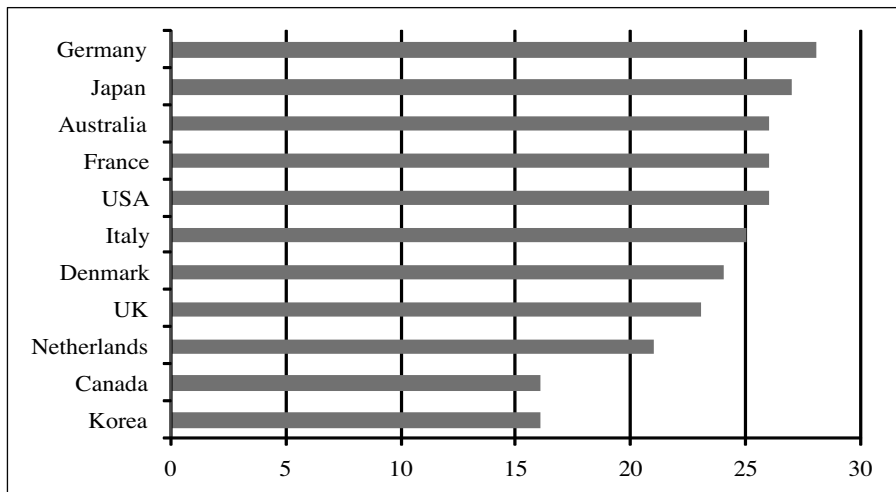
(5) 서비스교역부문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경쟁력을 지닌 분야는 운송분야에 불과하다[허재준 외(2007)].

〈表 8〉年平均 成長率, 就業者數 增加率, 生産性增加率

(단위: %)

		1981~1990	1991~2000	2001~2005	1981~1997	1998~2006
성장률 (A)	전체	8.7	6.2	4.5	8.1	4.3
	제조업	12.0	8.4	6.7	10.2	8.1
	서비스업	8.0	5.8	3.8	7.6	3.1
취업자수 증가율 (B)	전체	2.8	1.6	1.6	2.6	1.0
	제조업	5.3	-1.2	-0.3	2.7	-0.8
	서비스업	5.3	4.4	2.8	5.4	2.5
생산성 증가율 (A-B)	전체	5.9	4.6	3.0	5.5	3.3
	제조업	6.7	9.5	6.9	7.5	8.9
	서비스업	2.7	1.4	1.0	2.2	0.6

資料: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資料: OECD국가 수치는 90년대 중후반의 산업연관통계로서 Wöhl(2005), 우리나라는 2000년 투입-산출표.

〈그림 3〉 製造業의 中間投入에서 國內 生産 서비스재가 차지하는 比重(%)

조업의 생산성은 2003년 미국은 158.8, 일본은 118.8로 서비스산업보다는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한국생산성본부(2005)].

제조업에서는 중간재로서 서비스재를 이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낮아서 제조업 부문에서 국내 서비스재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림 3〉을 보면,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은 제조업의 중간투입에서 국내 생산 서

비스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 이는 2006년에 전체 서비스수지 적자 187억 달러 중 여행수지 적자 129억 달러, 다음으로 사업서비스수지 적자가 68억 달러에 달했던 점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업의 生産性 低下는 제조업 부문의 수출 증가가 내수경기로 확산되는 효과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3.5. 國內 消費 萎縮

IMF 이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의 변동성도 높아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 약화와 원화의 실질절상으로 海外 消費가 增加하였다. 특히 가격이 비싼 국내 레저, 원화의 구매력 증가 등으로 여행서비스 수지의 적자가 확대되었다. 국제화에 미흡한 국내 대학교육, 높은 교육열, 치열한 경쟁,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해외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서비스 수지 적자를 확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所得分配構造가 惡化되었다. 소득분배 약화는 외환위기에 의해 급격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져 실직자가 증가하고 영세자영업으로 전환한 많은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한 데에 기인한다. 나아가 고기능노동 수요를 증가시키는 특성을 지닌 기술진보[허재준 외(2002)], 중국의 부상에 따른 저기술기업의 경영사정 악화[최용석 외(2005)], 소멸된 제조업 부문 일자리에 비해 서비스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점[전병유 외(2006)] 등은 이러한 변화를 고착시켰다.

기업들이 세계적 수준에서 생산기지를 광역화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상승이 억제되었고, 중간관리자 층이 얇아졌다. 소비의 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은 해외에서 소비하고, 저소득층은 소득이 늘지 않아 소비의 여력이 낮아졌다. 이러한 내수부분에 대한 소비위축이 수출경기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침체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일자리는 저기능근로자에게도 장기적으로 장인적 숙련형성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보장해주는 특성을 지닌 반면, 서비스업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그러지 못함으로써 1990년대 이래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의 감소는 저기능근로자의 소득상승을 제약하였다. 또한 서비스업의 저생산성으로 인해 서비스업 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저임금 일자리가 훨씬 더 많다. 이러한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소비의 위축이 나타나 제조업부문의 수출 증가가 내수경기로 확산되는 효과가 약화되었다.

4. 連繫性 強化를 위한 政策方案

2000년 이후 한국의 수출과 내수의 연관성이 약화되고 있다. 수출 증가에 비해 소비나 투자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또 소비나 투자의 증가가 내수보다는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또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나 고용창출효과도 낮아지고 있다. 즉 과거에 비해 수출의 소득창출효과가 낮아졌다.

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은 수출의 소득증가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견실한 성장을 지속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앞에서 진단한 현상과 원인에 근거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4.1. 部品 및 素材의 國產化 提高

수출재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와 부품이 국내 시장에서 조달된다면, 수출 확대가 내수경제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부품의 국산화 비율이 낮은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부품생산의 기술수준이 낮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부품생산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가 높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주로 기술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부품을 들여오고, 후자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낮은 중국 등 개도국에서 부품을 수입하고 있다.

한국의 임금 수준을 개도국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技術開發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는데, 그 주요 원인은 완제품 수출재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일본에서 들여오기 때문이다. 기술개발을 통해 필수 부품의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면, 수출과 내수의 연관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부품의 해외수출을 통해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부품과 소재산업에서 일본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조립을 담당하는 일본의 대기업과 이들에게 부품 및 소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술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일본 대기업의 경우 1,000개사를 넘는 자회사와 그 산하에 있는 수많은 협력기업을 관리하면서 계열거래를 기초로 한 수직통합형 분업의 강점을 살리고 있다[박래정(2004)].

일본의 대기업-중소기업의 협력관계는 한국의 부품산업 성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에서도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계가 필요하다. 대기업은 수출재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개발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기술지원을 해주고, 정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4.2. 企業의 國內投資 促進

수출의 대부분은 대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수출로 얻은 이익이 내수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의 국내투자가 늘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저조한 편이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축적된 이윤을 국내에 투자하기 보다는 해외에 투자하는 비

율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세계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국내 유입되는 투자와 외국으로 나가는 투자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점은 국내 투자환경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러므로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規制를 준수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어 규제는 조세와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갖는다. 정부는 기업들이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추어 규제를合理化해야 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기업 활동의 비용을 줄인다면, 다소간 기업의 국내 투자를 늘리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 기업의 물류비 감소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거나 노사 간의 분쟁을 완화하는 것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길이다.

4.3. 技術開發을 위한 人力養成과 研究開發投資 擴大

199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의 경제성장은 생산요소의 투입에 의한 요소투입 성장의 특성을 보였으나,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은 기술진보에 바탕을 둔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노동집약적인 제품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비교열위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단순 자본집약적인 제품의 생산도 마찬가지로 중국 등 개도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게 되었다. 인건비가 높아진 상태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의 질을 제고하여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을 개발하여 제품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은 技術進歩를 통한 成長이다.

앞으로는 더욱 더 고급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대학교육이 일반 대중교육으로 바뀐 상황에서 모든 대학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우수 대학을 육성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실무중심 대학을 육성하여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실무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즉 大學의 多樣化가 필요하다.

또한 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노동시장의 柔軟性을 확대해야 한다. 산업구조가 급속히 변해가는 오늘날 노동자의 산업 간, 그리고 기업 간 이동이 용이하도록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교육훈련,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정책들이 필요하다.

한국의 부품산업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것도 기술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경제의 國內總生産(GDP)대비 연구개발 규모는 2.9%대로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연구개발

예산의 절대규모는 미국과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을 넘지 못한다. 따라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 한국의 연구개발투자와 특허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는 이미 한국 경제가 기술의 중요성을 체질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연구개발투자에 의해 개발된 기술이 생산 현장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 산업체와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바탕이 제공되어야 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스탠포드대학의 연구력과 접목되면서 서로 간에 상승작용을 거두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4.4. 서비스 産業 生産性 提高

선진국으로 갈수록 제조업의 비중은 줄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한다. 한국의 경우도 제조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을 보면,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초까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다시 전기·전자·기계공업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의 성장축이 변해왔는데, 이제 향후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증진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과 비교할 때,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제조업 부문에서는 무역수지 흑자이지만, 서비스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6년 서비스수지 적자는 187억 달러인데, 그 중 여행수지 적자가 129억 달러로 가장 크고, 특허권 등 사용료가 25억 달러 적자, 사업서비스수지 적자가 68억 달러 등이다. 서비스수지 적자를 주도하는 것은 이 세 항목이다.

제조업 부문의 수출로 얻은 외화가 여행 등 서비스수지 적자로 상쇄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의 증가로 외화가 유입되더라도 이것이 서비스 부문에서 적자로 다시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자본시장 개방과 함께 외화의 유입이 서비스수지 적자로 상쇄되었고, 외환위기 이후 서비스수지가 일시적으로 회복되었으나 다시 무역수지 흑자가 서비스수지 적자로 상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출로 유입된 외화가 내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의 競爭力이 높아져야 한다. 한국의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미국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소득의 증가에 따라 해외여행과 해외유학으로 소득이 유출되고 있다. 국내 여행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서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전환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조기유학을 억제함으로써 서비스수지의 적자를 줄여야 한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대하는 것은 내수경기 활성화와 지속적 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가 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이 강화되고, 소득 증가에 따라 고품질의 서비스와 재화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업의 세계화가 촉진되면서 협의의 제조품 생산공정보다는 연구개발, 디자인, 고객관리, 소비자 금융, 운송 등에서 부가가치의 창출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제조공정 전단계와 후단계에 위치한 서비스의 중요성과 다양성이 증가하고 제조업 내에서 고기술직종의 일자리가 증가했다(허재준 외(2007)). 이는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주요 접근법의 하나가 제조업 중간재로 투입되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데에 製造業이 중요한 초석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5. 맺음말

수출의 증가가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고, 소득의 증가가 다시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키면 수출의 경제성장 효과가 확대된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한국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성장률은 이전보다 현저히 낮아졌고 나아가서 국내 내수경기는 침체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가 과거에 비해 弱화되었기 때문이다. 수출의 경제성장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의 연계성을 強化하여 경제흐름이 선순환 되도록 해야 한다.

각종 지표들은 2000년 이후 한국의 수출과 내수의 연관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출 증가에 비해 소비나 투자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또 소비나 투자의 증가가 내수보다는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또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모두가 낮아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수출 증가가 소비나 투자로 전환되지 않고, 수출의 부가가치 기여율이나 고용창출효과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출과 내수의 연계성이 약화된 원인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산업구조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資本集約的인 산업으로 轉換되었다. 자본집약재의 수출증가는 노동집약재보다 고용창출효과가 작아서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고용이 상대적으로 덜 늘어난다. 둘째, 部品産業의 발달이 未洽하기 때문이다. 최종재의 수출이 늘어나더라도 필요한 부품이 해외에서 조달되기 때문에 수출산업과 국내 부품산업과의 연관효과가 낮아 수출의 내수경기 파급효과가 낮다. 셋째, 기업의 國內投資가 低調하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투자의 안정성을 중시하면서 수출로 벌어들인 이득을 투자로 전환하지 못하고, 또 국내투자보다는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다. 넷째,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

고 있다. 서비스업의 비중은 增加하고 있지만 생산성이 낮아서 서비스부문의 해외지출이 늘어나고 내수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이후 소비자들의 消費가 萎縮되었다. 고소득층의 자산소득은 증가하였으나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로 저소득층의 소비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었다.

수출과 내수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책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部品과 素材産業의 경쟁력을 強化해야 한다. 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위한 環境造成이 필요하다. 기업들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제도적 측면에서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물류비 감소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노사평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투자를 늘려서 技術을 開發해야 한다. 대학교육의 다양화를 통해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의 生産性を 높여야 한다. 한국은 제조업 부문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커서 내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전반적으로 수출과 내수의 연계성 약화는 산업구조 변화나 경제 환경 변화 등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성장의 핵심요인이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서 기술진보 쪽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일이다.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경제정책이 전개되어야 하고, 특히 부품산업의 기술개발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증가는 수출과 내수의 연계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된다.

全南大學校 經濟學部 教授

500-757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

전화: (062)530-1455

팩스: (062)530-1559

E-mail: tgkim@chonnam.ac.kr

韓國勞動研究院 前任研究委員, 勞動市場研究本部長

150-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회관 9층

전화: (02)782-9547

〈附表 1〉 5대 主要 輸出産業과 그 比重

순위	1990	수출 비중	1993	수출 비중	1995	수출 비중
1	가죽 및 모피제품	9.7	전자기기부분품	10.8	전자기기부분품	16.6
2	전자기기부분품	8.2	섬유직물	6.4	자동차 및 부분품	6.7
3	가정용전기전자기기	6.6	가정용전기전자기기	5.7	섬유직물	5.8
4	섬유직물	5.1	기타수송기계	5.3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5.2
5	섬유제품	4.6	가죽 및 모피제품	5.1	선박	3.9
	계	34.2	계	33.3	계	38.2
순위	1998	수출 비중	2000	수출 비중	2003	수출 비중
1	전자기기부분품	14.5	전자기기부분품	17.3	전자기기부분품	16.3
2	자동차 및 부분품	7.6	자동차	7.1	자동차 및 부분품	10.1
3	선박	5.0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5.9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9.8
4	섬유직물	4.8	선박	5.3	선박	5.1
5	철강 1차 제품	4.6	섬유제품	5.1	섬유제품	3.7
	계	36.5	계	40.7	계	45.0

資料: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 연도.

팩스: (02)785-7430

E-mail: hurjj@kli.re.kr

參 考 文 獻

- 박래정(2004): “기술자립이 해답이다,” 『LG주간경제』, 2004-7-14.
- 신현수·최용재(2007):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구조 회복 연구,” 산업연구원 보고서.
- 장재철(2004): “심화되는 경기 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443.
- 전병유·김혜원·신도균(2006): 『노동시장 양극화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06-02, 한국노동연구원.
- 최용석·차문중·김종일(2005): 『중국의 경제성장과 교역증대가 우리 경제에 갖는 의미: 한·중간 경쟁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2006):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안』.

한국생산성본부(2005): 『생산성 국제비교』.

허재준·서환주·이영수(2002): “정보통신기술투자와 숙련노동 수요변화,” 『경제학연구』, **50, 4**, 267-292.

허재준·서환주·이영수(2007): 『한국 경제의 구조변화와 서비스업 고용』, 한국노동연구원.

Wöfl, Anita(2005): “The Service Economy in OECD Countries,” STI Working Paper **2005~03**, OECD, Paris.